

전남도 '카타르 월드컵 홍보관' 인기

10일간 전 세계 2만여명 방문 웰니스 관광 자원 등 홍보 글로벌 전남관광 인지도 높여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도하에서 지난 18일까지 10일간 대한민국 지자체를 대표해 운영한 관광 홍보관에 2만 여명의 세계인들이 찾았다.

전남관광 홍보관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카타르한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월드컵 기간에 글로벌 관광객과 현지 중등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표 관광지 전남을 알리기 위해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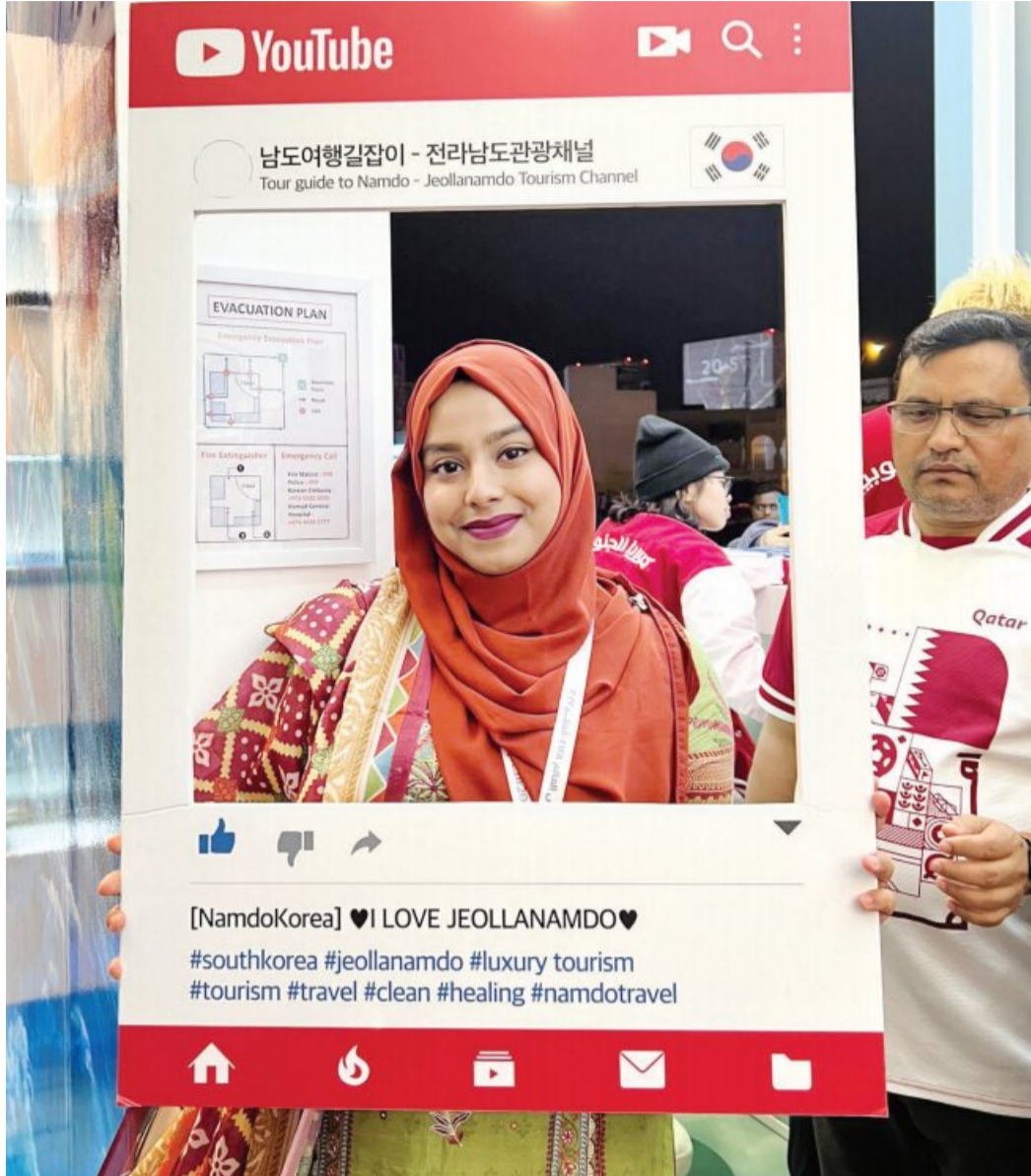
홍보관에서는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을 이용한 전남 방문의 해 및 전남 웰니스 관광 자원 홍보영상 등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도 소개했다. 또 전남 대표 누리소통망(SNS) 채널인 '남도여행길잡이'와 연계한 이벤트 및 기념품 제공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해 10일 동안 2만 명이상이 전남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카타르에 거주 중인 한 방문객은 "평소 BTS를 통해 대한민국과 서울은 알고 있었지만 전남은 모르고 있었다"며 "다양한 먹거리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유한 전남을 친구들과 함께 꼭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 방문의 해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한층 개선된 교통, 숙박 시설로 해외 관광객이 전남을 편하게 여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카타르 월드컵이 열린 도하에서 지난 18일까지 10일간 대한민국 지자체를 대표해 운영한 관광 홍보관에 2만 여명의 세계인들이 찾았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국내외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순천만국가정원 '한국관광의 별' 본상

전남, 신안 퍼플섬 등 역대 15곳

순천만국가정원이 '2022 한국관광의 별' 본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한국관광의 별'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한 해 동안 한국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지 또는 단체(인물)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국내 관광자원의 매력도와 기여도를 고려해 본상 4개, 특별상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 국가정원이다. 2013년 4

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조성됐고, 2015년 9월 5일 국가정원 1호로 지정됐다.

순천 호수정원이 있는 테마정원, 13개 나라의 세계정원, 16가지 테마정원, 32개 참여정원 등이 조성된 상태로, 내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린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전남 관광지는 신안 퍼플섬, 담양 음식테마거리,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보성 제암산 자연휴양림,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등 15개소가 있다. /김지를 기자 dok2000@

광주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최우수 지자체

공공자원 등록 정비 등 호평 8000만원 인센티브

광주시가 전국을 대표하는 공공자원 개방 공유 서비스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8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자원개방·공유서비스 실적평가'는 지자체

의 적극적인 공공자원개방·공유를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이 ▲개방자원 확대 및 홍보실적 ▲주민서비스 개선 노력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등을 심사했다.

광주시는 공공자원 등록 정비 및 서비스 홍보, 유휴공간 내 물품공유방 개선, 찾아가는 공유학교 운영, 공유장터 등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산림환경대상 자치분야' 대상

산림산업 육성 의지 호평

김영록 전남지사가 22일 서울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자치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 온난화 방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지사는 2018년 8월 민선7기 취임 즉시 조직 개편을 단행, 산림조직을 2개 과로 확대해 산림 보호와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국립 완도난대수목원과 국립한국정원문화원 유치, 동북아 정원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202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등 대형 프로젝트 유치 성공으로 산림 관광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산사태 주민 사전 대피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2022년 산림청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불철산불방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보전에 힘쓴 노력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은 지난 2005년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임 광주시 국제관계대사에 박선철 씨

광주시는 22일 "신임 국제관계대사에 박선철(53) 전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박선철 신임 국제관계대사는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외무고시 28회에 합격, 그해 5월 외무부 외무사무관으로 공직에 임명됐다. 외교통상부 주오사카총영사관 영사, 주스위스연방대사관 1등서기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 교학과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남북경제과장, 외교부 주남아프리카공화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거쳐 주나고야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

사·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신임 국제관계대사가 풍부한 외교경험과 남북교류협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시 외교 역량과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2024년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광주시 개최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일자리 어워드' 행안부장관상

전국 최초 도·시·군 함께하는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 호평

전남도가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어워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시·군·연 일자리 재정지원을 하고 전남도는 자체 인큐베이팅을 통해 4248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12일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지방시대, 지자체 행정혁신을 소개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자치 엑스포'에 참가한 76개 지자체, 15개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혁신 및 일자리정책 등을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우수사례 서류심사와 전시 내용,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창출 사례 창의성, 파급력, 지속성, 융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엑스포 전시에서도 엑스포 참가 이래 처음으로 전남도와 시군이 통합전시관을 구성해 도와 시군의 일자리 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유기적 일자리 선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전시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 박형준 부산시장, 조재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 주요 내빈이 전남도 전시관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건섭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도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며 "내년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진도전남병원 소아과 신설

진도전남병원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능하게 됐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전남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1차년도에 시설·장비, 인건비 등으로 3억 1700만 원을 지원받고 2차년도부터는 매년 2억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지원받게 됐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진도에 거주하는 소아청소년 3700여 명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 서비스를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민의 건강증진 효과뿐 아니라 의료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정주여건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도전남병원은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하고 시설 개보수를 거쳐 필요 의료 장비를 갖춘 뒤 내년 7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필수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

소통으로 친근한 행정
상생으로 튼실한 경제
참여하며 나누는 복지
문화관광 꽃피는 도시

광산구